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에 위치한 문경골프&리조트는 빼어난 접근성과 코스 구성, 가성비와 절경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2018 XGOLF 소비자선정 10대 골프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림같은 풍경·행운 기원 코스 ‘선물 같은 힐링’

전국 어디서나 한두시간내 접근 가능
행운 기원·소원성취 스토리 있는 코스
코스관리·이용료·서비스 만족도 9점대
이용객들 “아름다운 경치 여행 온 느낌”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에 있는 문경골프&리조트(대표이사 김진수)가 스포츠동아와 XGOLF가 주최하는 2018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후보에 올랐다.

문경골프&리조트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고객들이 남긴 평점에서 전체평점 9.3의 성적표를 받았다. XGOLF(www.xgolf.com)가 집계한 전국 300여개 골프장의 평균점수가 8.7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캐디서비스(9.4) 그린피만족도(9.6) 코스관리(9.2) 식음료만족도(9.1) 등에서 고루 9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문경골프&리조트의 자랑거리는 많다. 먼저 위치. 골프장이 아무리 좋아도 멀거나 가는 길이 힘들면 선풍 내키지 않는다. 문경골프&리조트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나 골프모임 장소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접근성이 뛰어나다.

골퍼들이 원하는 또 다른 조건은 코스의 질이다. 문경골프&리조트는 대중골프장이지만 코스의 질이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진정한 샷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빼어난 가성비도 자랑거리다. 65객실의 리조트를 이용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1박2일간의 마음껏 골프를 즐길 수 있다.

광해관리공단과 문경시가 골프장의 대주주로 운영에 참가해 이익기업의 높은 신뢰성도 자랑한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골프장은 그림 같은 비경을 품고 있다. 문경골프&리조트는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듣고 가는 힐링골프 투어’를 선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문경골프&리조트골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힐링이다

기대감을 안고 골프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선 골퍼들은 힐링이 된다.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문경새재 나들목을 통해 문경읍내에 들어선 뒤 잘 조성된 꽃길을 따라가다 보면 계곡형 코스가 고객을 맞이한다. 골퍼들은 울창한 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삶의 낙락함을 느낄 수 있다. 잘 관리된 잔디와 전국골프장 가운데 가장 많은 소나무가 심어진 덕분에 깊은 숲 속에서 힐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

2006년 9월 개장한 퍼블릭 정규 18홀은 문경의 스토리를 담은 문화코스과 경서코스로 구성됐다.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의미의 문화코스는 평온한 소나무 숲, 눈앞에 펼쳐진 백두대간의 봉우리, 문경에서만 볼 수 있는 폐광석들이 곳곳에 배치돼 편안하면서도 난이도가 있다. 경서코스는 일의 조짐이 있다는 뜻의 경서코스는 골짜기 특유의 자연형 계류와 연못, 자연석과 야생화가 어우러진다. 자연경관이 뛰어나면서도 역동적인 코스다.

문경골프&리조트는 서울과 수도권, 중

부과 남부, 충청권, 영남권을 동시에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 전국 어디서나 한두 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문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적 성격의 대중골프장이기에 이용료도 수도권의 골프장보다 저렴하다. 대신 퀄리티는 회원제 골프장에 버금가는 편이 높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향우회나 동문회 골퍼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장소로 최적화됐다.

●코스마다 넘쳐나는 스토리, 문경골프&리조트의 자랑 삼경이벤트

문경GC는 코스마다 문경지역의 옛이야기나 전설 등을 집목한 삼경이벤트를 통해 고객 감성마케팅에 집중한다. 일경은 문화 6번 부자홀이다. 가장 경관이 좋다. 봉황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봉명산의 신비로움이 깃든 행운 테크에서 단산 장자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행운과 부가 찾아온다고 한다. 이 곳에서 알바트로스를 하면 1년간 문경GC 주중 그린피 면제권과 함께 벵코리아 드라이버가 제공된다.

이경은 문화 2번 소원성취홀이다. 주출산~탄향산~월악산~포암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기운을 간직한 책바위와 은당골에서 자녀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홀이다. 4명이 모두 파 이상을 기록하면 지역 특산물 오미자 음료를 준다.

삼경은 경서2번 다복홀이다. 성주산 구랑리 마을의 한 가정에는 9명의 동자가 태어나 3정승6판서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곳에서 다복의 기운을 받아가는 이벤트

홀이다. 4명이 파 이상을 하면 3부 주중 그린피 면제권을 준다. 문경GC를 방문하는 많은 골퍼들의 소원을 담아 부자가 되고 자녀의 성공을 기원하며, 다복의 행운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로 입소문이 났다.

●신뢰성이 보장된 문경골프&리조트 고객들의 생생한 후기

9월 20일 작성된 현모 씨의 소감은 “무엇보다 경치와 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여행 온 느낌이였다. 코스의 난이도는 조금 있어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실력을 늘린 후 다시 한번 라운딩 하면 재밌을 것 같다”였다.

9월 11일 방문했던 문모 씨의 후기는 디테일이 있다. “도심에서 벗어나 페어웨이와 그린 관리가 잘된 자연에서 건물조차 보이지 않아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어 행복했다. 소나무와 새들이 보이고 백두대간의 전경은 자연의 선물을 받은 듯 하다. 스타트 두부두루치기는 해장 겸 식사대용으로 아주 좋았다. 전날 과음에도 불구하고 밤 2그릇을 딱딱했다. 역시 골프장의 대표 메뉴는 달랐다. 캐디분들의 친절함 등 힐링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추천드린다.”

9월 6일 찾은 신모 씨는 “페어웨이 폭이 좁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 모습은 우려에 불과했다. 계곡형 코스로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천혜의 자연경관뿐이고 액자만 걸쳐 놓으면 작품 제대도다. 바로 이런 게 힐링’이었다면서 “10월 단풍라운딩도 문경에서 하기로 만장일치로 약속했다”고 적었다. 김홍진 기자 marco@donga.com

“체육인 일자리 창출 스포츠 기본권 강화”

오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정책학회 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체육유관단체 관계자 및 일선 현장 지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 개선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스포츠기본권 강화 방안’이다. 손석정 교수(삼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의 ‘우리나라 체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최현선 교수(명지대 행정학과)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적법성’을 발표한다. 이어 정승재 교수(장안대 행정법률학과)가 ‘체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관련법 분석 및 정책 제안’을 발표하게 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영 오산시체육회 과장, 이재원 부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 예정이다. 양형오 기자 rambi@donga.com

내년 광주세계수영 참가하는 캐나다 단장 광주 방문…경기장 등 현장 답사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캐나다 수영 대표팀 단장이 광주를 방문해 분야별 실무회의와 선수촌 및 경기장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3일, “캐나다 대표팀 마지 슈에트단장이 지난 1일 조직위를 방문해 각 분야별 실무 담당자와 회의를 실시하고 2일에는 수영대회가 열리는 선수촌과 경기장 현장 등을 답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세계적인 수영 강국으로 150여명 규모의 대규모 선수단을 세계수영선수권에 파견하고 있다. 슈에트 단장은 광주에서 안전대책, 경기운영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 업무 담당자와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선수촌과 경기장의 이동 동선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대회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각국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조직위도 현재의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영국과 호주 대표팀 대표단이 광주를 방문해 경기장 답사를 할 예정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국가대항전 사상 첫 우승 OK!...‘4인의 퀸’ 준비는 끝났다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오늘 티오프

박성현·유소연·김인경·전인지
기량·성적 경쟁국에 압도적 우위
포볼·싱글매치 통해 최강자 결정



박성현 유소연 김인경 전인지

국내 최초로 열리는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160만달러·약 18억원)이 오랜 기다림 끝에 화려한 막을 올린다. 전 세계 여자골프를 호령하는 8개국 스타플레이어 32명은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코리아(파72·6508야드)에서 4일부터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8개국 국가대표 4명이 포볼과 싱글

매치를 통해 승부를 겨루는 국가대항전이다. 2014년 초대 대회에선 카롤리타 시간다가 이끄는 스페인이 정상에 올랐고, 2016년 2회 대회에선 크리스티 커가 버틴 미국이 인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톱랭커들을 배출한 한국은 아직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최나연~김인경~박민비~

유소연과 김세영~전인지~양희영~유소연 등 막강한 라인업으로 1회와 2회 대회에 나섰지만 각각 3위와 준우승에 그쳤다.

아픔을 지우고 첫 우승 달성이라는 중책을 맡은 주인공은 박성현과 유소연, 김인경, 전인지다. 각각 세계랭킹 1위와 3위, 10위, 27위에 올라있는 이들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기량과 성적에

서 나머지 7개국 선수들을 모두 압도하기 때문이다. 박성현은 최근 7주 연속 세계랭킹 왕좌를 지키는 자타공인 1인자이고, 이 대회에 3회 연속 출전하는 유소연은 직전 열린 일본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기량을 절정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또한 최근 부진과 부상이 겹쳤던 김인경과 전인지 또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식기를 맞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공식연습을 소화한 뒤 3일에도 대회장에 나와 코스를 점검했다.

이처럼 태극낭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끝냈지만, 7개국 선수들의 우승 열망도 이에 못지않다. 강력한 우승후보이자 개최국 프리미엄을 안은 한국을 꺾고 적지에서 영광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경쟁국들의 견제를 받는 한국은 같은 A조에 속한 대만(4일)~호주(5일)~잉글랜드(6일)와 포볼 매치로 결승 진출을 다툰다.

인천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